

의정부-포천 광역전철망 검토대상 確定

전교부 광역교통기본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는 11월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향후 20년 동안 총 116조 원을 투자해 전철 463km에서 1천 520km로 확대하고 간선도로는 1천 84km를 3천156km로 현재보다 약 3배로 확충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하여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의정부-포천-철원간 수도권 광역전철연장사업이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전철 포천 유치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정부-포천-철원축(54km)의 경우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계획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포천시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경기중북부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장안기지차량 이전 및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일부를 광역철도 재원으로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하철 포천 연장 사업은 2002년 말부터 추진해 왔다. 또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장기검토대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5개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KID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포천시는 광역철도를 유치하기 위해 철도망 사업의 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에 포천시(의정부-포천-철원)이 장기 검토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2006년 11월에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천선이 반영되도록 했으며 올 5월31일에는 포천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장기검토계획으로 반영되었다. 지난 7월18일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18일 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천시와 의정부시,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개시 국회의원과 시장들은 최근 경기중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관광휴양단지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하게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지난 8월30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광역철도 유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광역철도 신설연장 공개 제안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규모를 감안해 공동으로 철도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정부의 예산지원을 최소화



국도 43호선 포천-의정부 구간은 일일 교통량 6만8천대에 이르고 있어 국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단행적인 교통정책으로 인해 출퇴근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물류비가 크게 증가해 중소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의정부-포천-철원(54km) 간 수도권 광역전철연장사업이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으로서 전철포천 유치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 구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계획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 광역철도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개제안서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5개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 우선사업 대상에 선정돼 조속한 시일내에 광역철도 연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안서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재원에만 의존할 경우 경기 중북부지역에 광역철도 지정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3개 지자체(포천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철도 신설연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지역 주택분양시 수익자 부담금을 광역철도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일부를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지하철도 7호선 장안기지차량을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과천선과 일산선, 분당선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은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철도건설 재원을 조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천시에서는 전철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기관단체, 시민 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지속적으로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교통부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거 전철유치에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8년 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6@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④
 국도 43호선 포천-의정부 교통난 해소되나

축석-하송우리 6차로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

축석-무봉-이가팔리 2차로 신설노선 추진중

건설교통부는 21일 향후 20년 동안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국도 43호선 축석-하송우리간을 6차선으로 확포장 사업 여부를 가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석고개-무봉리-이가팔리-하송우리간 2차로 확포장공사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포천-의정부간 교통난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기획예산처는 국도 43호선 축석-하송우리간 연장 8.25km에 폭 32m(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국도43호선(축석-하송우리) 도로 확포장

의정부시 자일교에서 포천시계(축석) 구간 3.94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2005년12월부터 확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축석-송우리 구간은 기존 4차에 머물고 있어 교통난 해소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석고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포천시는 2006년1월부터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에 포천구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2006년9월 포천시 구간 사업 조속시행을 재건의를 비롯해 같은 해 11월 황영철 부시장 이 서울국토관리청에 사업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건의, 2007년 2월 포천시 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부 방문 사업건의, 3월 포천시장 건설교통부 방문 사업건의, 7월 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부 방문 사업건의 등을 거쳐 8월에 건설교통부는 축석-하송우리 구간에 대한 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또 8월 건설교통부는 축석-하송우리 구간에 대한 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의뢰했고 기획예산처는 11월21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순위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축석-하송우리 구간 6차로 도로확장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2008년5월까지 6개월여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양주 신도시 개



발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지도 98호선 및 지방도 360호선과 국도 43호선을 접속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국도 43호선 확포장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축석고개-무봉리-이가팔리 2차로 신규도로 확포장공사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있는 국도43호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축석-무봉리(부인터 사거리)-이가팔리-송우웨딩홀-하송우리 구간은 있는 도로개선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축석-무봉리(부인터 사거리) 도로는 대한주택공사 부담금으로 연장 3.79km에 폭 10.5m(2차로)에 대해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 올 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 5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09년 착공할 예정이다.

무봉-이가팔리 구간은 도비와 시비 등 170억을 들여 연장 2.78km, 폭 12m(2차로) 도로로 광릉송우회도로에서 이가팔리 383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8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송우리-송우웨딩홀 구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축석고개-무봉간 도로와 연계해 국도 43호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도로는 연장 1.15km, 폭 10m(2차로)로 61억원을 들여 2008년 3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과 2009년 공사에 착공해 2011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6@paran.com

社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 200,000원(자동이체)
- 강수동 (재)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원(자동이체)
- 고남성 진 포천제일사우나 대표 125,000원
- 권익주 포천제일교회 목사 100,000원(자동이체)
- 한명수 청송삼계탕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박노형 용아섬유(주)대표이사 100,000원(자동이체)
- 곽복준 주부명예기자단 영증명자부장 100,000원
- 박병식 이북닷컴 대표 50,000원(자동이체)
- 강옥자 늘봄꽃회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유재철 10,000원(자동이체)
- 송우리지역 노년연습장 모임 김현성 회장 외 회원일동 100,000원(월 정기이체)
- 열린노래방 대표 김명철
- 원 노래방 대표 강수만
- 삼 노래방 대표 정종림

▶오이스드 노래방 대표 정동국

- 광란 노래방 대표 김진희
- M·S 노래방 대표 김한성
- 퀵 노래방 대표 정수환
- 조물빛 노래방 대표 이민철
- 2차 노래방 대표 하준자
- 유영가 노래방 대표 채경순
- 플리 노래방 대표 김영찬
- 코러스 노래방 대표 이재정

▶성금 및 물품전달내역

- 최영선 소홀음 송우리 독거노인 100,000원, 쌀 20kg 2포대(86,000원)
- 김옥자 소홀음 송우리 독거노인 100,000원, 쌀 20kg 2포대(86,000원)
- 심정순 어룡1동 독거노인 100,000원, 쌀 20kg 2포대(86,000원)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 농협 585-01-015241 (주)포천신문사



Global Inspiration
세경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앞서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뉴타운조성
1,1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질서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광역교통망의 구축과 대중교통시스템의 개선으로 편리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 및 개발
무분별한 개발과 허술한 관리로 오염되어가는 경기도를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명품 경기도가 되겠습니다.